

[상세 내용]

2007년 미국경제 전망

이 호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lee@kiep.go.kr, Tel; 3460-1012)

고 희 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주요 내용

- 2006년 6월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준금리를 현 수준(5.25%)에서 동결해오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열렸던 FOMC 회의 결과를 볼 때,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보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주택시장의 위축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2006년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을 보이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 연착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그동안 2007년 상반기 중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예상되었으나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12월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07년 2/4분기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음.
- 그러나 이번 FOMC의 회의에서 나타난 경제상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07년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의 진정세, 무역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안정세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비자지출과 민간투자의 증대효과 등으로 3% 수준의 추세적인 성장률에 접근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1. 배경

- 지난 2006년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고유가,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 등으로 인해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더욱 지지를 받고 있음.
- 최근에 발표된 미 FRB 베이지북(Beige Book)을 보면, 2006년 11월~2007년 1월 초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2007년 1월 17일).
- 또한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월 30~31일)에서 금리를 현 수준(5.25%)으로 동결한 바 있음.
- 더구나 지난 1월 31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2006년 4/4분기 GDP가 예상보다 높은 전기대비연율 3.5%를 기록하여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더욱 지지를 받았음.
- 그러나 이후 발표된 수정치(2월 28일)에서는 4/4분기 GDP를 당초 전기대비연율 3.5%에서 2.2%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중국발 금융불안(2월 27일)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미국 경제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2월 6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하여 전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총 2조 9000억 달러 규모의 2008 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미국경제는 3% 정도의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의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 본고에서는 지난해 제기되었던 미국의 경기둔화 요인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를 살펴 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2007년 미국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함.

2. 최근 미국경제 진단

- 2006년 4/4분기 GDP(잠정치)는 개인소비지출, 수출과 정부지출의 증가세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0.2%p 증가한 전기대비연율 2.2%를 기록하여, 연간으로는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표 1 참고).

- 개인소비지출은 주택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 따뜻한 겨울 날씨 등에 힘입어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기대비연율 4.2% 증가하였음.
- 민간총투자는 주택건설투자가 대폭 감소한 데다 기업고정투자의 감소에 따른 설비투자 및 소프트웨어 등의 부진에 따라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반면 순수출은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지난 분기에 비해 수출은 33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107억 달러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의 적자규모는 연간 환산치로 지난 분기보다 437억 달러 감소한 5,85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표 1. 미국의 GDP 성장을 추이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04년	2005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¹⁾	연간 ¹⁾
실질GDP	3.9	3.2	5.6	2.6	2.0	2.2	3.3
개인소비지출	3.9	3.5	4.8	2.6	2.8	4.2	3.2
민간총투자	9.8	5.4	7.8	1.0	-0.8	-15.6	4.2
(설비투자) ²⁾	7.3	7.5	8.2	-1.6	-1.2	-8.5	2.9
(비주거 건설투자)	2.2	1.1	8.7	20.3	15.7	-0.8	8.8
(주택건설투자)	9.9	8.6	-0.3	-11.1	-18.7	-19.1	-4.2
정부지출	1.9	0.9	4.9	0.8	1.7	3.3	2.1
순수출(십억 달러) ³⁾	-590.9	-619.2	-636.6	-624.2	-628.8	-585.1	-618.7
(수출)	9.2	6.8	14.0	6.2	6.8	10.5	8.9
(수입)	10.8	6.1	9.1	1.4	5.6	-2.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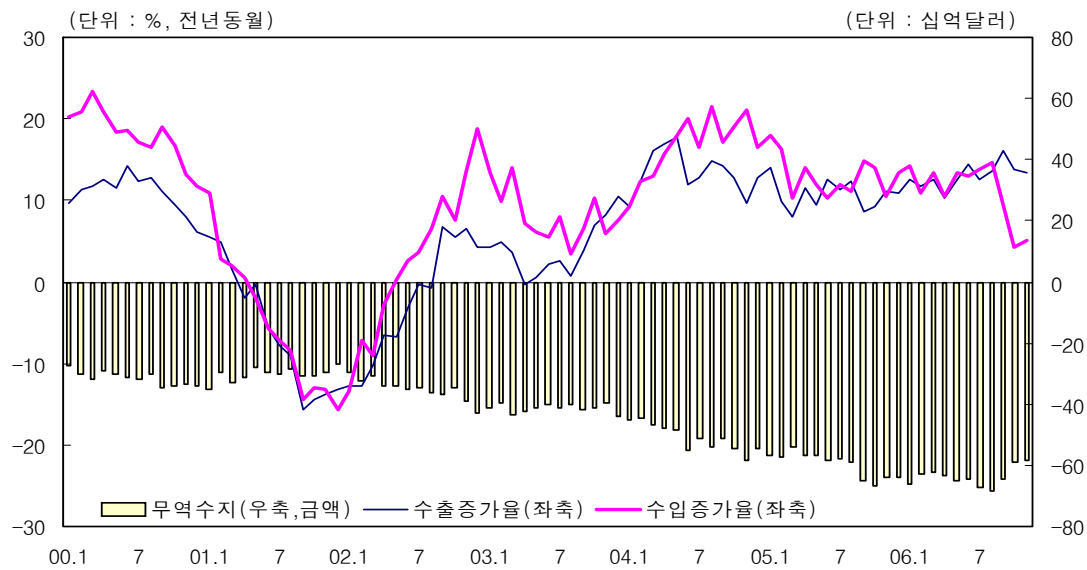
주: 1) 잠정치, 2) 소프트웨어 포함, 3) 연간 환산치.

자료: 미국 상무부

-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수입증가세는 둔화됨으로써 무역수지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그림 1 참고).
- 지난 2002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68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지난해 11월에는 58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와 같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2005년부터 일본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유로지역 경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국과 이들 국가들간의 경제성장 격차가 상당 폭 축소된 데 힘입어 견실한 수출증가세가 지속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5년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하회(수출증가율 및 수입 증가율이 각각 전년대비 10.7%, 13.0%)하였으나 2006년(1~11월)에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2006년 수출 및 수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3.1%, 11.2%)하였음.
- 더구나 2006년 9월 이후(9~11월)에는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4.4%, 6.3%를 기록하는 등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음.

그림 1.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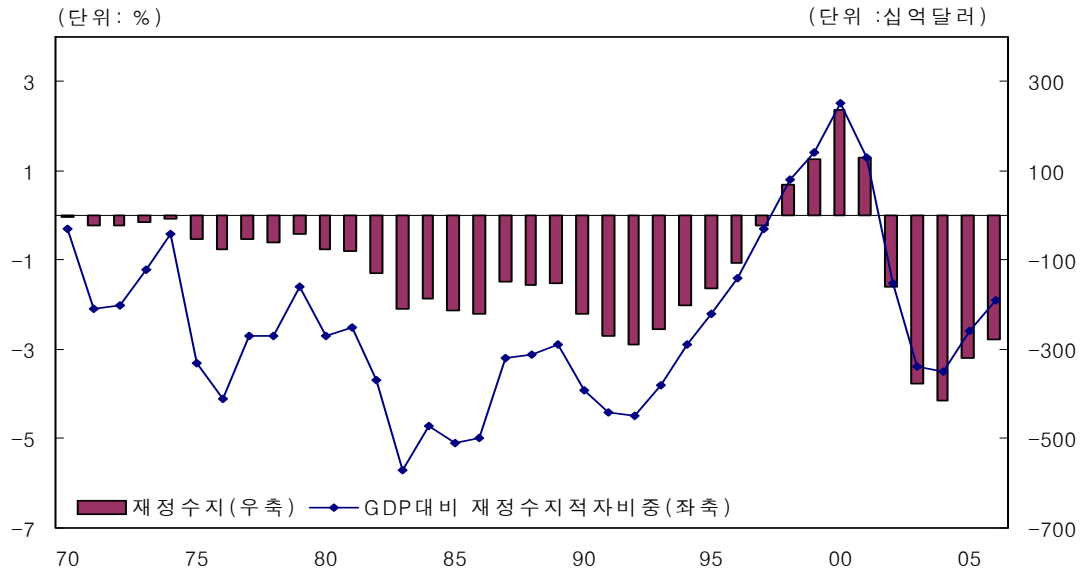


주: 수출 및 수입은 상품 및 서비스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

- 아울러 지난해 8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부담을 경감시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올해에도 일본 및 유로지역의 성장격차 축소에 따라 미국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 수입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지난 2007년 1월, 미 의회예산국(CBO)에서 발표한 2006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되었음(그림 2 참고).
- 또한 2007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도 당초 예상보다 1,100억 달러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증가에 따른 법인 및 개인소득세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 더구나 2008년 회계연도 재정수지 적자도 980억 달러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표 2 참고).

그림 2. 재정수지 추이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표 2.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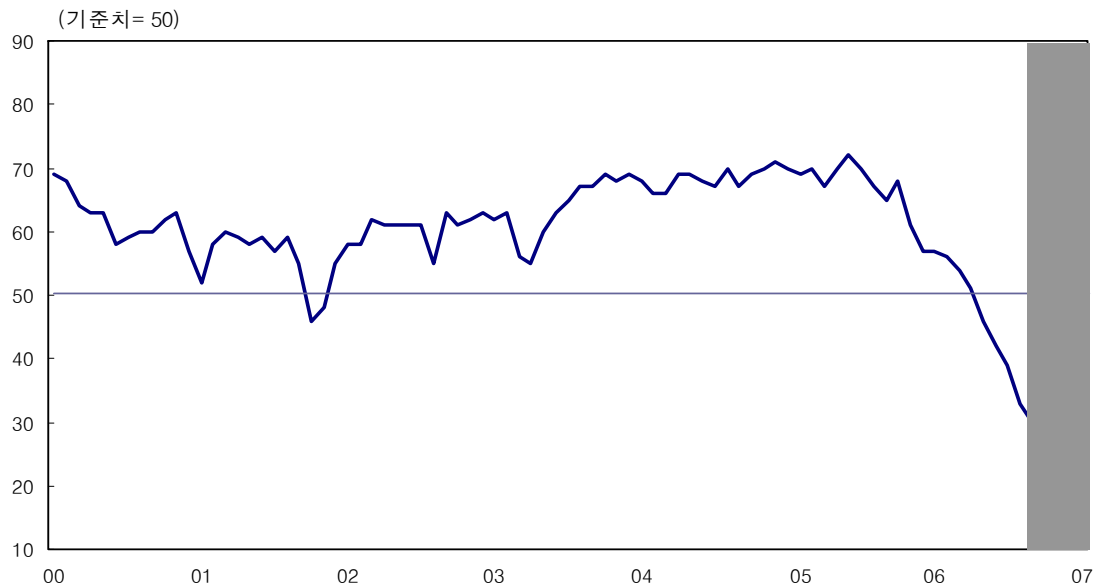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48	-172	-98	-116	-137	-12	170	159	185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지난해 미국경제 둔화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부문이었으며, 주택경기의 침체는 가계의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었음(그림 3 참고).
- 우선 지난 2005년 하반기 이후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주택건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의 주택시장지수(House Market Index)는 2006년 10월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9월에 1991년 2월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후 소폭 상승하여 2007년 1월 현재 35를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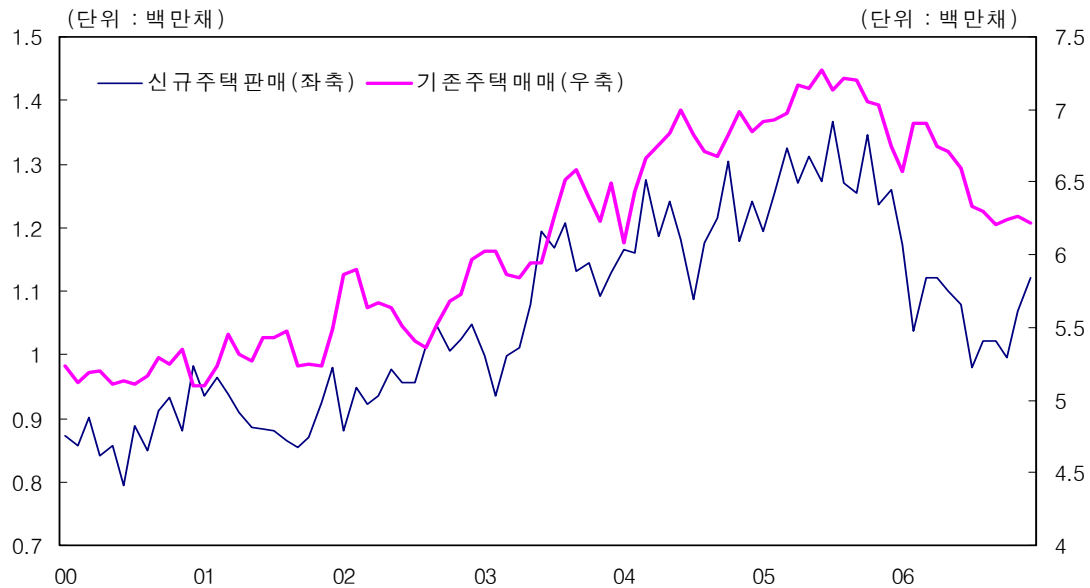
그림 3. 주택시장지수 추이



자료: 미국 전국주택건설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 2006년 중 기존주택판매는 전년(707.5만 채)대비 8.4% 감소한 648만 채를 기록하여 1982년(-17.7%) 이후 연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으나 10월 이후 감소폭은 축소되었음(그림 4 참고).
- 기존주택판매는 지난 3/4분기에는 전기대비 6.1% 감소하였으나 4/4분기에는 0.6%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음.
- 또한 2006년 중 신규주택판매의 경우 1/4분기부터 3/4분기 연속 감소함에 따라 전년(128.3만채)대비 17.3% 감소하였으나, 4/4분기 중에는 오히려 전기대비 5.4%증가하였음.
- 이와 같이 2006년 초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을 보이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 연착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민간의 소비지출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실적 호조, FOMC회의(6월 29일) 이후 금리인상 지속가능성 약화 등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의 상승세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그림 5 참고).

그림 4.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추이



자료 : National Assoc. of Realtors

-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주택순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유발된 실질소비자지출 및 민간 투자지출 증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이 됨.
- 2007년 들어서도 유가 하락, 경제지표 호전 등으로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우존스지수 및 나스닥지수의 상승세는 지속되었으나, 지난 2월 27일 인민은행 총재의 중국의 긴축정책, 위안화절상 가능성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가는 급락하였음.
- 그러나 이후 중국발 금융위기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용시장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있음.
- 이에 따라 3월 12일 현재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2,318.6 포인트(종가기준), 2,402.3 포인트를 기록하였음(그림 5 참고).
- 한편 향후 연준의 금리결정에 중요한 판단을 주는 물가지표 중 생산자물가(근원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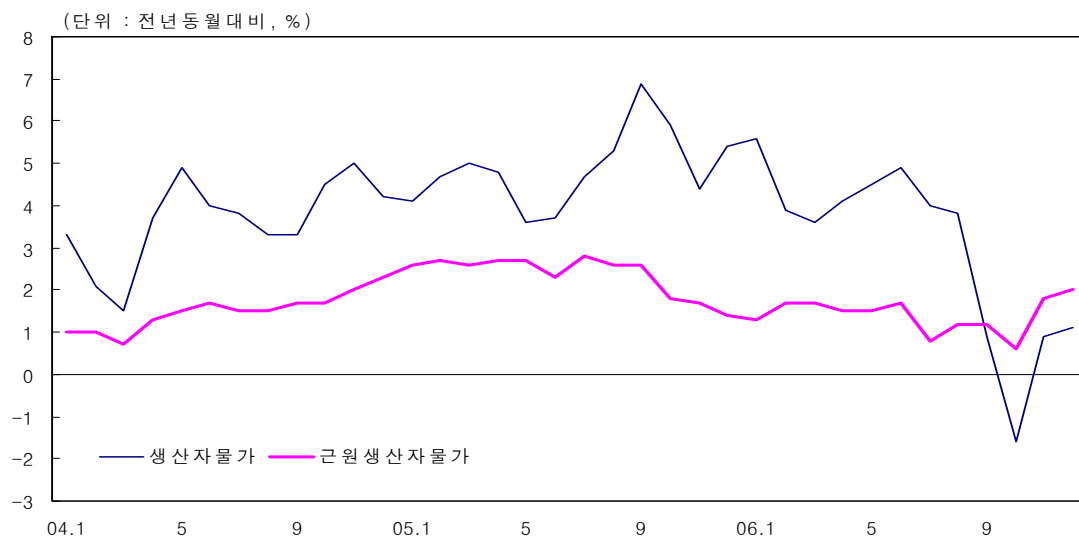
그림 5. 다우존스지수와 나스닥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우선 생산자물가의 경우 지난 4/4분기 중(10~12월) 전기대비 -0.8%(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하였으며, 근원생산자물가의 경우 전기대비 0.3%(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음(그림 6 참고).
- 또한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된 1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6% 하락하였으며, 근원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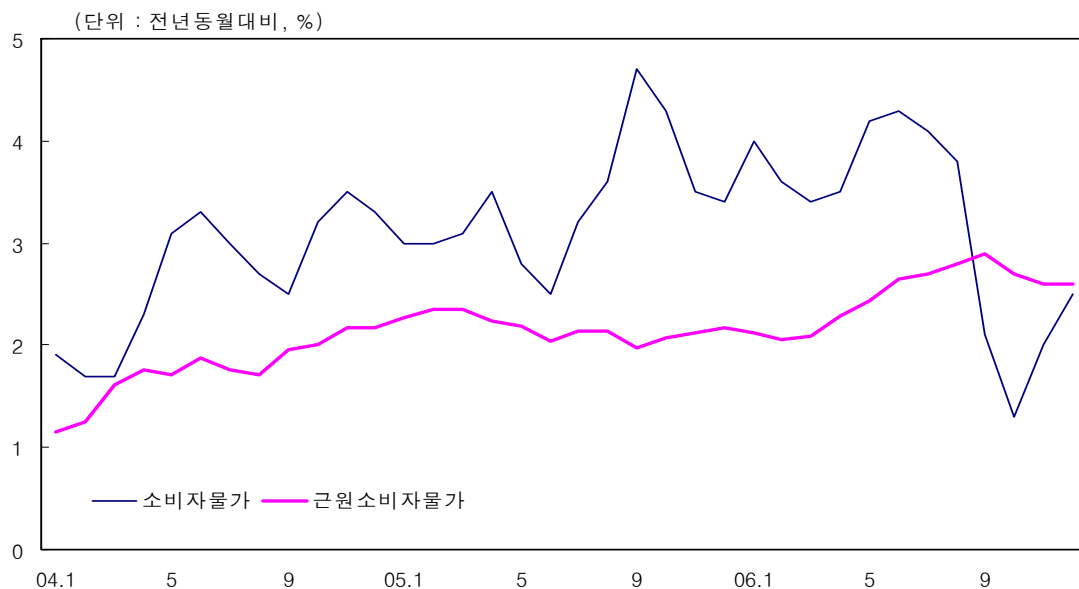
그림 6. 생산자물가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

- 또한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동기간 중 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였으며, 근원소비자물가의 경우 전기대비 0.4% (전년동기대비 2.6%)를 기록하였음(그림 7 참고).
- 이와 같은 물가의 안정세 원인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하락 또는 안정세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노동부에서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가격 상승 및 의료 및 항공여행 증가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하였으며, 근원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다소 높은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

그림 7.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

- 한편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열린(1월 30~31일) FOMC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연방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5.25%)하였음(그림 8 및 표 3 참고).
- FOMC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도 일부 안정 신호가 나타나 향후 미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몇 개월간 근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다소 개선되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자원 활용도가 높아 인플레이션 상승의 잠재적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 긴축의 범위와 시기는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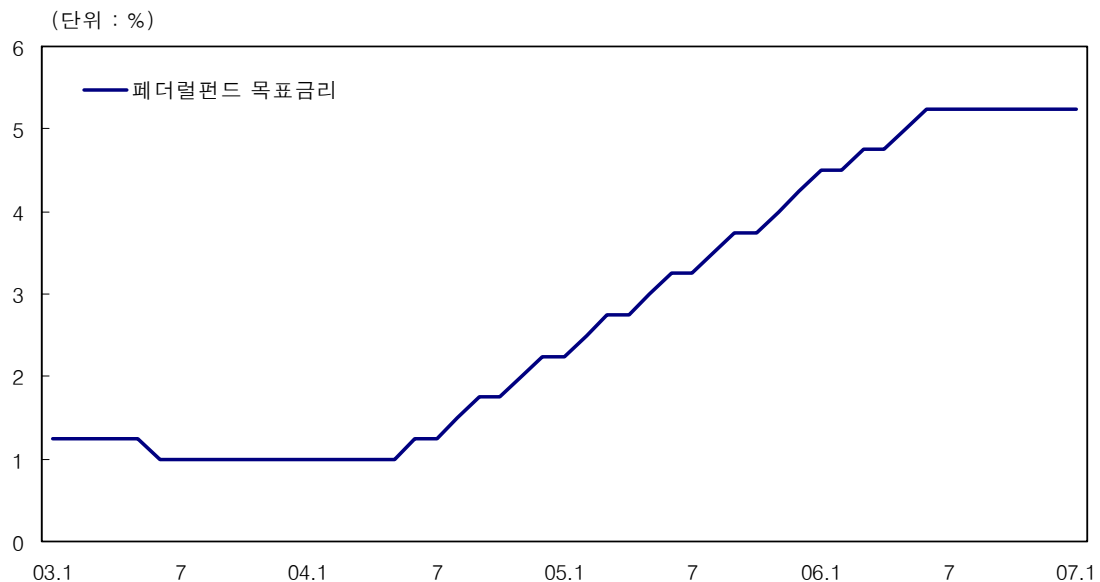
- 2007년 2월에 Bloomberg가 실시한 주요 투자기관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금리전망에 대한 조사(2월)에 따르면, 이번 3월 20~21일의 연방기금금리는 현 5.2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다수가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2007년 FOMC회의 일정

1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2월
30/31	20/21	9	27/28	7	18	30/31	11

자료 : FRB

그림 8.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추이



자료: FBB

3. 미국경제 전망

- 지난해 6월 이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지준금리를 현 수준(5.25%)에서 동결해 오고 있는데 올해 1월 열렸던 FOMC 회의 결과를 볼 때,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보다 미국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주택시장의 위축에 따른 성장둔화 효과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2006년 연초부터 빠른 속도로 위축을 보이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미국경제 연착륙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해 미국경제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주택부문으로 이러한 주택경기 침체는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었음.
- 한편 그동안 2007년 상반기 중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그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음. 지난해 12월 Bloomberg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인하 가능성 조사에서 2007년 2/4분기 중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음.
- 그러나 이번 FOMC의 회의에서 나타난 경제상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인하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007년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둔화의 진정세, 무역수지의 개선, 인플레이션의 안정세 및 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비자지출과 민간투자의 증대효과 등으로, 3% 수준의 추세적인 성장률에 접근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2007년 일본경제 전망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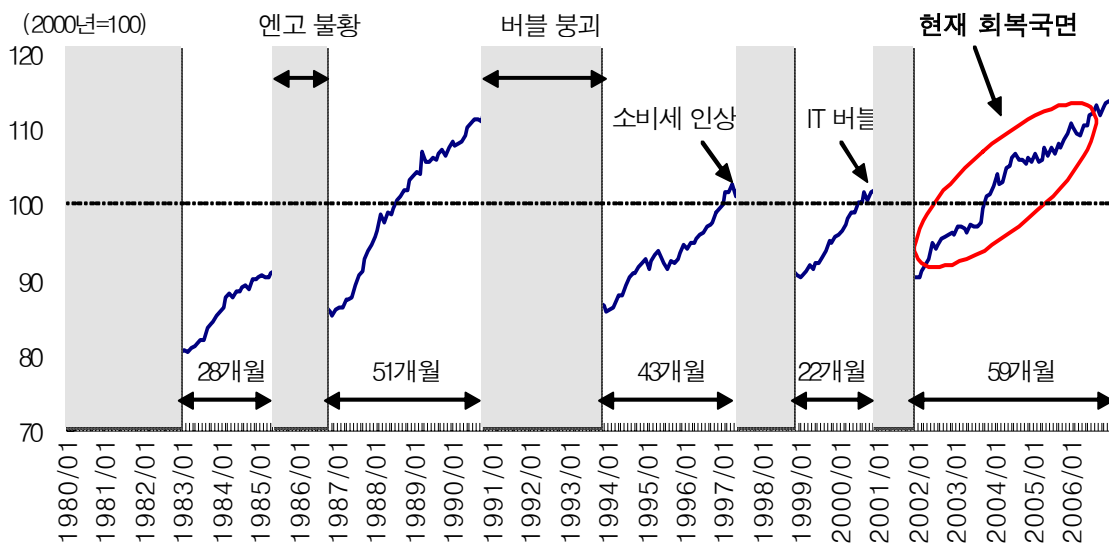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일본경제는 현재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 [생산·수익 증가] → [고용·임금 (소폭) 증가] → [개인소비 (소폭) 증가] → [생산·수익 증가]의 선순환이 작동되는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6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3%(연율 5.5%)로,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 하였으며, 이러한 호조세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공공투자 등의 증가에 기인함.
 - 2006년 전체로는 2.2%의 성장을 달성했으며, 외수요인(0.8% 포인트)뿐만 아니라 내수요 인(1.4% 포인트)에 의해 회복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시현함.
- 일본정부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7년도 경제성장률은 2.0%로, 잠재성장률(1%대 후반)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1/4분기를 포함한 상반기에는 ①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증가세 둔화 가능성 ② IT 부문의 생산속도 조정 ③ 대형투자 완료 및 완만한 임금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감속 성장이 전망됨.
 - 다만 일본경제는 상당 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갖고 있어 기초적인 회복경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으며, 하반기부터는 성장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일본은행은 7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2월 21일, 무담보 콜금리를 0.25% → 0.5%로 인상)하면서 금리수준의 정상화를 꾀하였음.**
 -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낮은 물가상승세,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확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미국경제의 후퇴 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1. 배경

- 일본경제는 2002년 이후 장기간 경기회복 국면에 있으며, 이미 버블시기의 호황 국면(51개월)과 전후 최장의 호황기였던 이자나기 경기(57개월)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경기회복 국면의 지속 여부와 함께 촉진 및 제약 요인, 거시경제정책적 대응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림 1. 일본의 경기동행지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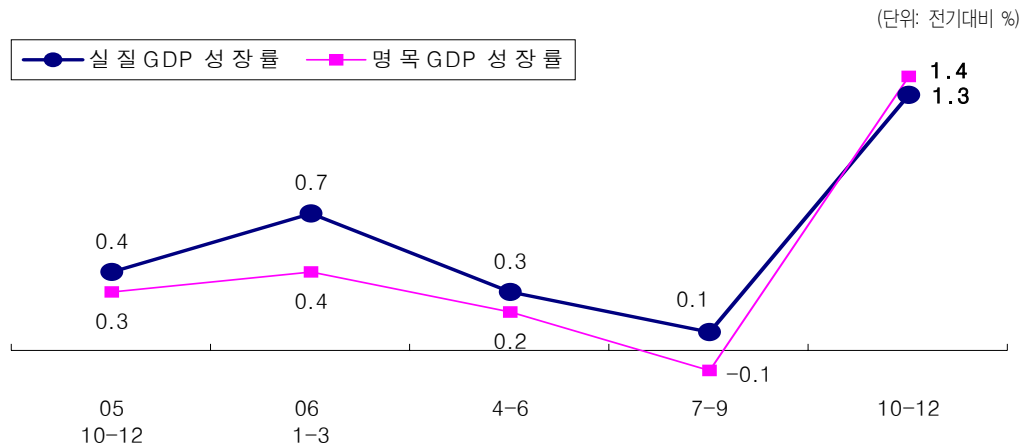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4/4분기 GDP 통계속보 및 주요 기관이 제시한 2007년도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현재의 일본경제 회복 국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평가함.

2. 최근 동향: 설비투자 및 수출 호조로 성장세 반전

- 지난 3월 12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GDP 통계속보(2차 속보치)에 따르면, 2006년 4/4분기(10~12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연율 환산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였음.
- 금번 2차 속보치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1차 속보치(전기대비 1.3%, 연율 4.8% 상승)를

상회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장세의 확대는 주로 설비투자, 공공투자 확대에 기인함. 전체적으로는 3/4분기 둔화에 대한 반등의 성격이 강함.

그림 2. 일본의 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표 1.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2006년 분기별 기여도

(단위: 전기대비 %)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질 GDP	0.7	0.3	0.1	1.3
국내수요	0.6	0.4	-0.3	1.2
민간수요	0.7	0.6	-0.3	1.0
민간소비	0.0	0.3	-0.6	0.6
민간주택투자	0.1	-0.1	0.0	0.1
민간설비투자	0.5	0.5	0.1	0.5
공공수요	-0.1	-0.1	-0.1	0.2
정부소비	0.0	0.1	0.1	0.0
공공투자	-0.1	-0.2	-0.2	0.2
순수출	0.1	-0.1	0.4	0.1
수출	0.3	0.1	0.4	0.1
수입	-0.2	-0.2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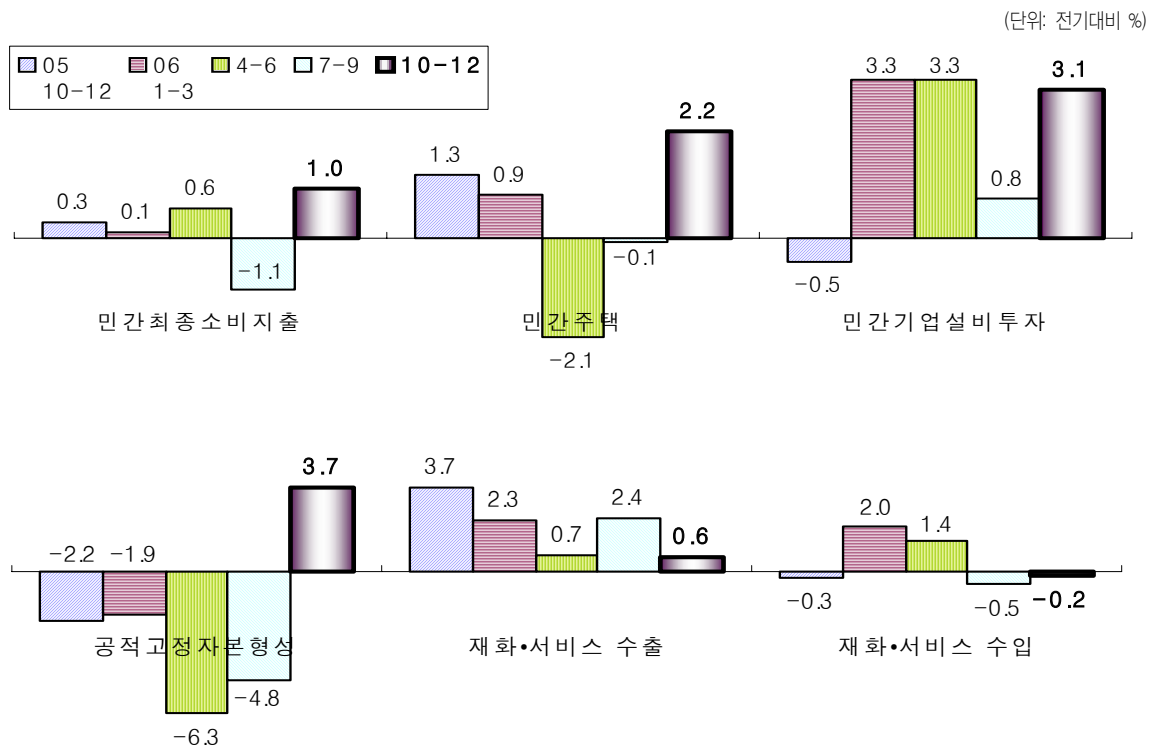
자료: 大和総研(2007. 2. 19); 内閣府(2007. 3. 12).

■ 민간수요: 개인소비 상승 반전, 설비투자 성장 지속

-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전기대비 +1.0%(3/4분기 -1.1%)로 크게 상승하였음. 이는 전분기의 기후불순과 유가급등 등으로 인한 소비격감의 반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그밖에 박형 TV 및 게임기 등 디지털 수요와 서비스 소비의 확대 요인이 있었음.

- 주택투자는 전기대비 +2.2%(3/4분기 -0.1%)로 상승세를 보였음. 여기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단카이(団塊) 세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 취득 증가와 분양아파트의 착공 증가도 기여하였음.
- 민간설비투자는 전기대비 +3.1%(3/4분기 +0.8%)로 11분기 연속 증가하였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광범위한 업종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음.

그림 3. 일본의 최근 분기별 주요 항목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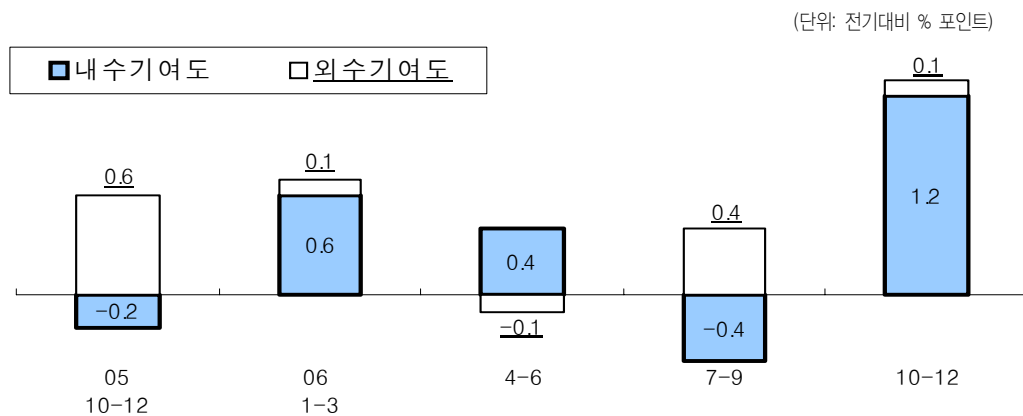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 공공수요: 증가세 전환, 해외수요: 성장세 지속

- 공공수요는 공적고정자본형성이 3/4분기 -4.8%에서 4/4분기에는 +3.7%로 대폭 증가함. 이는 2006년도 상반기의 대폭적인 하락에 대한 반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임.
-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전기대비 +0.6%(3/4분기 +2.4%)로, 7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음. 이는 엔저를 배경으로 아시아 및 유럽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에 기인함.

- 국내총지출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국내수요가 전기대비 1.2% 포인트 증가, 재화·서비스의 순수출(해외수요)이 전기대비 0.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4/4분기 일본경제의 성장은 3분기와 달리 해외수요보다는 내수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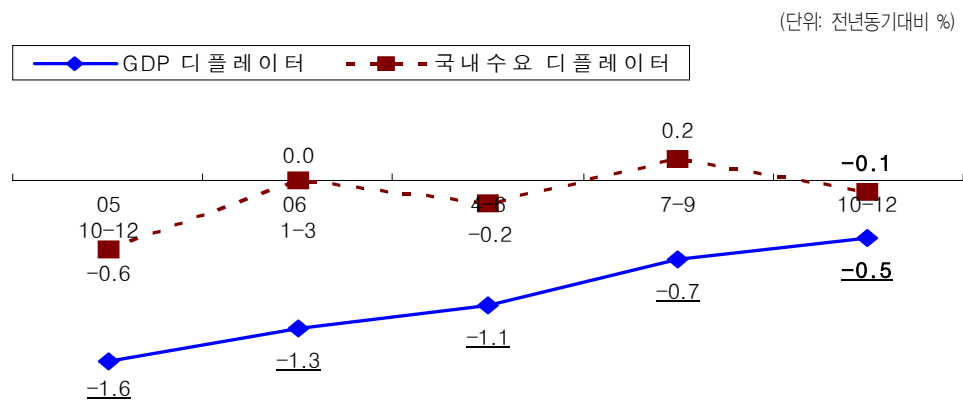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최근 분기별 내외 수요별 실질 GDP 기여도의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 한편 4/4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0.5%로,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을 상회(그림 2 참고)하는 등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시화되는 움직임을 보임.

그림 5. 일본의 최근 분기별 GDP 디플레이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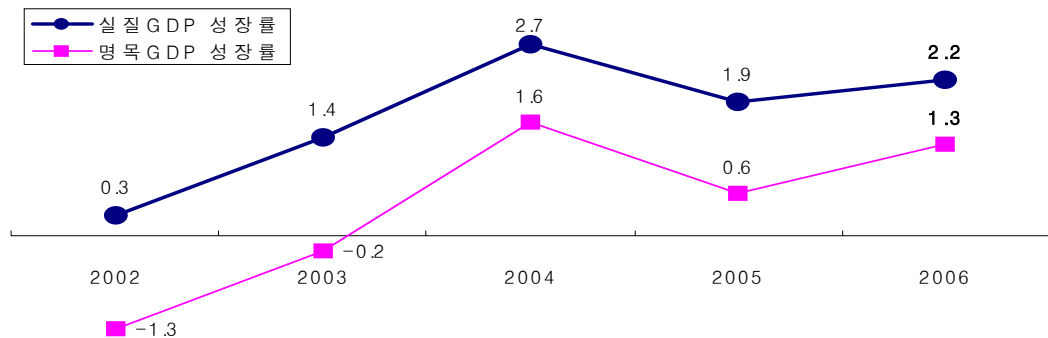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 2006년 전체의 실질 GDP 성장률은 4/4분기의 대폭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2.2%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실감도를 반영하는 명목성장률도 1.3%를 기록함으로써 2005년의 0.6%에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음.

그림 6. 일본의 시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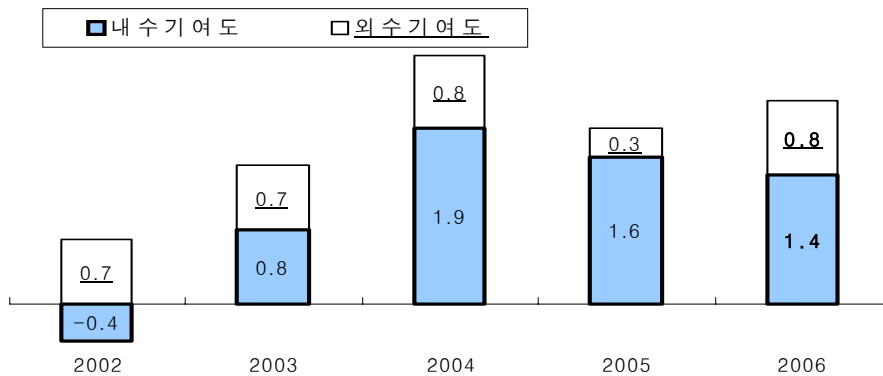


주: 각연도 1~12월 기준임.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 실질 GDP에 대한 수요 항목별 연간 기여도를 보면, 2006년에 내수 및 외수 기여도가 각각 1.4% 포인트, 0.8% 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최근의 일본경제는 수출 확대 등의 외수 요인뿐만 아니라 설비투자과 개인소비의 확대라는 내수 요인에 더 크게 의존하여 회복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일본의 시기별 내외 수요별 실질 GDP 기여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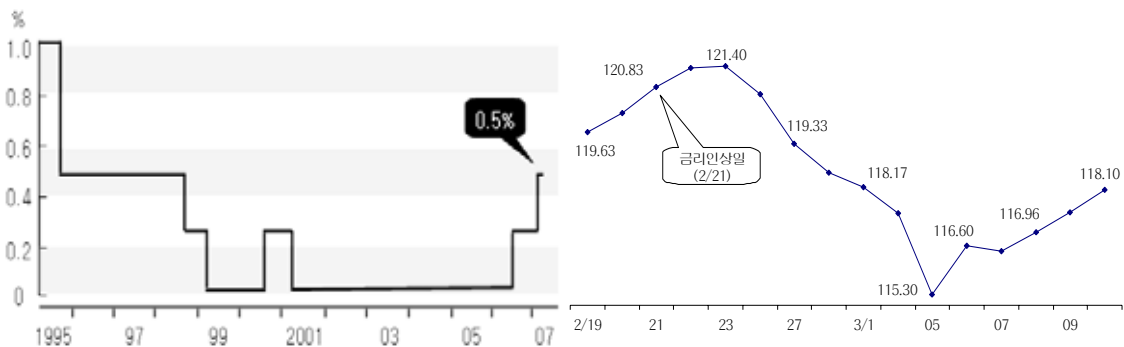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 포인트)



자료: 일본 내각부(2007. 3. 12)

- 한편 일본은행은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하고 무담보 콜금리를 0.25%로 인상하였으며, 지난 2월 21일에는 7개월 만에 다시 0.25% 인상하여 0.5%로 했음.
- 금번 금리인상의 표면적 배경에는 4/4분기 일본경제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던 점이 작용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4월 자치단체장 및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리수준(또는 금융 정책)의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일본은행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이러한 금리인상에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외환시장에서는 오히려 엔화 환율이 일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음.

그림 8. 일본의 무담보 콜금리 및 환율 변동 추이



주: 1999년 2월 제로금리정책 도입, 2000년 8월 해제, 2001년 3월 복귀, 2006년 7월 해제.
자료: 일본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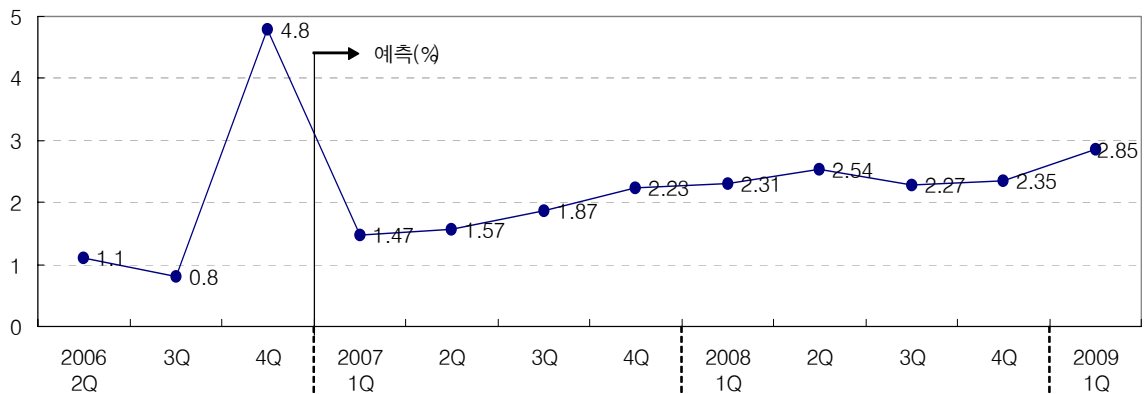
3. 2007년 1/4분기 일본경제: ‘감속’ 전망

- 최근 일본 내각부 산하의 경제기획협회가 발표한 「ESP(Economy Society Policy) 예측조사」(2007. 3. 9)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으로 1.4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것은 2006년 4/4분기의 5.5% 성장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감속세는 2/4분기(1.57%)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07년 상반기 경기 감속 전망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①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증가세 둔화 가능성 ② IT 부문의 생산속도 조정 ③ 소재·철도 부문 등에 의한 대형투자의 완료 ④ 완만한 임금상승 등의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는 2%대 전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후에는 2%대 중반의 견실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매월 발표되는 「ESP 예측조사」는 36명의 이코노미스트(연구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예측치를 집계하여 평균한 것으로, 시장의 경제전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이번 조사는 2월 26일 ~ 3월 5일에 실시).

그림 9.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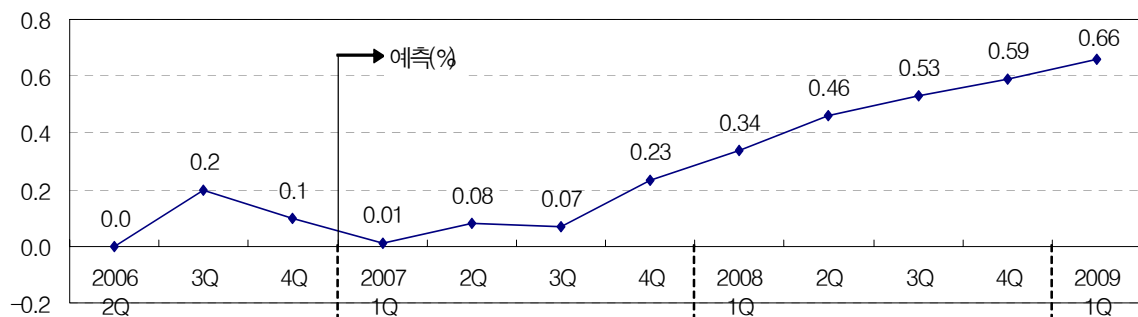
주: 2006년 4/4분기 수치(4.8%)는 1차 속보치에 근거하고 있음(2차 속보는 3월 12일 발표).

자료: 경제기획협회(2007. 3. 9), 「ESPフォーキャスト調査」.

-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분기에 평균 0.0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분기(2006년 4/4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07년 4/4분기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그림 10.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자료: 위와 같음.

- 마지막으로 실업률은 1/4분기에 4.00% 수준으로 전망되어 2006년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기업활동의 확대 경향, 단카이 세대의 퇴직에 따른 인재 확보 등을 반영하여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4. 2007년도 일본경제: ‘안정 성장’ 전망

- 일본정부 및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7년도 일본경제는 2.0% 정도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정부의 발표(2007. 1. 25)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2007년도에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일본내 14개 민간연구소의 2007년도 일본경제 전망치의 평균 역시 2.0%로 나타났음(2007. 2. 23 기준).

표 2. 2007년도 일본경제 전망

(단위: %)

	2005년도 실적	정부		민간
		2006년도 전망	2007년도 전망	2007년도 전망
실질 GDP	2.4	1.9	2.0	2.0
민간최종소비지출	1.9	0.9	1.6	1.5
민간주택투자	-1.0	0.5	0.2	1.9
민간기업설비투자	5.8	7.1	3.6	4.7
정부최종소비지출	0.9	1.1	1.6	1.0
공적고정자본형성	-1.4	-11.4	-4.3	-4.9
수출	9.0	7.6	6.2	5.4
수입	6.0	4.6	4.9	3.8
(국내수요 기여도)	(1.9)	(1.4)	(1.7)	-
(해외수요 기여도)	(0.5)	(0.5)	(0.3)	-
명목 GDP	1.0	1.5	2.2	2.2
소비자물가지수	-0.1	0.3	0.5	0.1
경상수지(GDP 대비)	3.8	3.9	4.3	4.3
환율(계산의 전제)	113.2	116.4	117.3	116.2

주: 1) 연도는 회계연도(예컨대 2007년도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2) 민간의 2007년도 전망치는 14개 연구기관의 평균임(2007. 2. 23 현재).

자료: 내각부(2007. 1. 25), 「平成19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2007. 2. 23), 「民間調査機関経済見通し」.

- 일본경제는 2007년 상반기에 ① 해외경제의 감속에 의한 수출증가세 둔화 가능성 ② IT 분야의 생산속도 조정을 주요인으로 하여 감속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 단 일본경제는 상당 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회복경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은 낮음.
- IT 설비 이외 부문의 재고율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금속·기계 부문의 재고율은 과거 최저 수준임. 이 때문에 광공업 전체에서 대폭적인 생산조정이 발생할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기업은 구조조정 압력의 해소, 수익 개선 및 자금여유 호조세의 환경하에 있음. 기업의 경영과제가 '과잉 고용·설비·채무 해소'로부터 '글로벌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고용에의 적극적인 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가운데 개인소비는 기업의 노동분배율 억제 등의 부정적인 요인과 고용정세의 개선, 주가 상승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등락의 변동 양상이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유가 하락에 따른 임금인상 여지 확대,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 영향(퇴직일시금 증가, 현역세대에는 임금인상의 여지) 등의 긍정적 요인에 따라 개인소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당분간 감속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7년도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에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한편 미국경기의 '연착륙'이 실현되면 2007년 하반기에는 성장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수급밸런스의 개선을 배경으로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완만한 임금상승, 가계의 저가품 소비 지향, 전년대비 석유제품가격 상승속도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5%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완만한 금리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어 향후에도 대폭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더군다나 2007년 중반까지의 낮은 물가상승세와 감속성장 예상, 7월의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2007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5. 평 가

- 2007년도 일본경제는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분기를 포함한 상반기에는 수출 감속, IT 분야의 조정 등에 따라 성장템포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설비투자와 개인소비 등의 국내 민간수요가 낮은 수준이지만 견실함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07년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지면서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대폭적인 감속, IT 부문의 급속한 생산조정 및 미·일 통상마찰 악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우려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도에 정체 국면에 빠질 수도 있음.
- 그러나 향후 일본경제는 ①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중기적인 확대국면에 있고 ②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③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재고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 기초의 대폭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월 21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27일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의 대비 필요” 언급이 맞물리면서 이후 일본 엔화가 강세로 반전되고 있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본격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일간 금리(각각 5.25%, 0.5%)격차가 여전히 크고 단기간내 추가적인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저금리의 엔화자금을 빌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외국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격적인 청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미국경제의 후퇴 가능성이 대두

될 경우 리스크 회피를 위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확대될 것이므로, 2005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국내 엔화대출(2006년 9월 말 현재 152.2억 달러, 금융감독원 자료)의 환차손 발생 가능성이 대해 유의해야 할 것임.

2007년 중국경제 전망

양 평 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3460-1121)

주요 내용

- 2006년 중국경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이 심각했던 1994년 이후 최고치인 10.7%의 성장률을 달성함.
- 그러나 하반기 이후 긴축조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면서 2/4분기에 11.5%에 달하였던 성장률이 3/4분기에는 10.6%로, 4/4사분기에는 10.4%로 하락하고, 도시지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하반기 이후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7% 포인트 하락한 24.5%를 유지함.
- 무역흑자 확대 등 해외부문에 의한 유동성 증가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투자증가율로 인해 2007년에도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과 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각각 0.5%포인트 씩 인상한데 이어, 3월 18일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각각 0.27%포인트 인상하였음.
-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통상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에 대한 우대를 축소하는 정책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는 2007년에는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다소 둔화됨으로써 2006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1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추가적인 긴축조치와 수출에 대한 규제로 투자와 수출증가율이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위안화 환율은 연간 5% 내외(상반기 중 3% 내외)의 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가. 2006년 중국경제는 10.7% 성장

- 2006년 중국경제는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이 심각했던 1994년 이후 최고치인 10.7%의 성장률을 달성함.
- 중국정부가 2006년 들어서 경기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상(2회), 지급준비율 인상(3회), 철강 등 과잉생산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등 일련의 경기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왔음.

표 1. 2006년 중국의 주요 경기 안정화 조치

일 시	주 요 내 용
2006. 4. 28	대출 기준금리 인상(1년 만기대출금리 5.58% → 5.85%)
2006. 5. 18	부동산 거시조정 조치 6개항 발표
2006. 5. 29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 하향조정 등 부동산가격 억제 시행령 발표
2006. 6. 19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7.5% → 8.0%)
2006. 6. 28	철강, 자동차 등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2006. 7. 20	거주용 주택 구입에 대한 실명제 등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2006. 7. 21	지급준비율 8.5%로 0.5% 포인트 인상(8.0% → 8.5%)
2006. 8. 18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 인상(1년 만기대출금리 5.85% → 6.12%)
2006. 9. 15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 발표
2006. 11. 15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 발표(8.5% → 9.0%)
2006. 11. 3	804개 가공무역 금지 품목 발표(11월 22일 시행)
2007. 1. 15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9.0% → 9.5%)
2007. 2. 25	지급준비율 0.5% 포인트 인상(9.5% → 10.0%)
2007. 3. 18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 인상 (1년 만기대출금리 6.12% → 6.39%)

- 이에 따라 3/4분기 이후 경기 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중국의 과열경기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

- 2006년 2/4분기에 11.5%에 달하였던 경제성장률은 3/4분기에는 10.6%로, 4/4분기에는 10.4%로 하락함.

- 중국의 경기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는 두 차례에 걸친 대출금리 인상(4월, 8월), 지급준비율 인상(6월, 7월, 11월),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둔화되기 시작하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2.7% 포인트 하락한 24.5%의 증가율을 기록함.

※ 도시고정자산투자 증가율 : 6월 33.5% → 8월 21.5% → 10월 16.8% → 12월 13.8%

- 반면 중국정부의 투자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부문 투자는 2/4분기 이후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1~11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31.0% 증가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택가격상승률이 2005년의 6.5%에서 2006년 2/4분기의 5.7%, 3/4분기에는 5.5%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심천, 북경, 복주, 하문 등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 2006년 국내소비는 자동차, 통신기기, 석유제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0.8% 포인트 높은 13.7%의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수출도 27.2%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 국내소비가 2006년 4/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득증가에 기인한 것임. 2006년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12.1% (실질 10.4%),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10.2%(실질 7.4%) 증가하였음.

■ 2006년 수출은 선진국 경기 호조, 전기전자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한 반면, 수입은 19.9% 증가한 데 그쳐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대비 73.8% 증가한 1,775억 달러를 기록함.

- 무역흑자 확대는 국내 유동성 증가를 유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과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GDP 성장률 ¹⁾	10.1	10.4	10.7	10.4	11.5	10.6	10.4
공업생산 증가율	16.7	16.4	16.6	16.7	18.0	16.2	14.8
소매판매 증가율	13.3	12.9	13.7	12.8	13.9	13.8	14.3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²⁾	27.6	27.2	24.5	29.8	31.3	28.2	24.5
소비자물가	3.9	1.8	1.5	1.2	1.3	1.3	2.0
총통화(M ²)	14.6	17.6	16.9	18.8	18.4	16.8	16.9
수출증가율	35.4	28.4	27.2	26.5	24.0	28.7	28.9
수입증가율	35.8	17.7	19.9	24.9	18.5	22.0	15.5
무역수지	319.8	1,018.8	1,775.3	232.0	379.6	487.1	677.6
FDI	606.3	603.3	630.2	142.5	141.8	141.6	204.3
환율(위안/달러, 평균)	8.2768	8.1917	7.9718	8.0398	8.0103	7.9611	7.8615

주: 1) 2007년 1월 24일 2005년 성장률을 종전의 10.2%에서 10.4%로 수정 발표함.

2)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누계기준)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6』;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중국상무부 등.

- 중국인민은행은 4/4분기 금융정책보고서에서 안정화 조치로 국내 총통화 및 대출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시중의 과잉유동성 문제도 다소 해소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함.
- 총통화증가율은 3/4분기 들어 조금씩 둔화되어 12월 말에는 16.8%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도 14.6%로 전년대비 1.8% 포인트 하락함.

나.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급증

- 급속한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외화 유입이 지속되면서 2006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5년 말 대비 2,474억 달러 증가한 1조 663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곧 중국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무역수지 흑자 확대, 중국으로의 단기 투기성 자금(Hot money)의 유입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5년까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자와 투기성 자금 유입이 외환보유액 증가를 주도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무역흑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3. 중국의 외환보유액 현황과 증감 요인

(단위: 억 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외환보유액		1,656	2,122	2,864	4,033	6,099	8,189	10,663
외환보유액 증가분		109	466	742	1,168	2,067	2,089	2,475
증감 요인	직접투자	408	469	527	535	606	603	630
	무역수지	241	231	303	254	328	1,021	1,775
	금융부분	-	-	-	-	-	121	64
	오 차	-540	-234	-88	380	1,132	344	5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중국해관통계; 중국상무부; 외국인투자사이트 등

- 2005~06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2,79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외환보유 증가분의 61.3%에 해당함.
-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유입(QFII, 외국계 은행 및 보험사 진출 등)이 외환보유액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 기대, 중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어 왔으나, 2006년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성 자금은 순수출로 전환됨.

다.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절상과 변동성 소폭 확대

- 대미달러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21일 환율제도 변경(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인 절상이 이루어져왔음.
- 2006년 말에는 연초대비 3.35%가 추가 절상되었으며, 2006년 2/4분기 이후 1일 변동 폭도 대폭 확대됨(위안화/미달러 환율의 1일 변동 허용 폭은 $\pm 0.3\%$ 임).

표 4. 2006년 이후 월간 중국 위안화 환율 변화 추이

(단위: 위안/달러, %)

	월말 환율	월간 절상률	누계 절상률	일일 변동폭
2006년 1월	8.0608	0.117	0.117	0.019
2006년 2월	8.0415	0.240	0.357	0.022
2006년 3월	8.0170	0.306	0.664	0.045
2006년 4월	8.0165	0.006	0.670	0.053
2006년 5월	8.0188	-0.029	0.641	0.076
2006년 6월	7.9956	0.290	0.933	0.041
2006년 7월	7.9732	0.281	1.217	0.036
2006년 8월	7.9585	0.185	1.404	0.056
2006년 9월	7.9087	0.630	2.042	0.064
2006년 10월	7.8792	0.374	2.424	0.050
2006년 11월	7.8436	0.454	2.889	0.060
2006년 12월	7.8078	0.459	3.349	0.063
2007년 1월	7.7776	0.388	3.660	0.065
2007년 2월	7.7409	0.474	4.134	0.071
2007년 3월 19일	7.7351	0.075	4.209	0.052

주: 누계절상률은 2005년말 대비 절상률임.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2. 2007년 중국경제의 과제

가. 투자과열 재연 가능성 상존(常存)

- 중국정부의 경기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투자재원 조달구조 때문이다.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재원 조달에 있어 정부의 예산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기업의 자기자금에 의한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됨.

※ 2005년을 기준으로 고정자산투자 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가예산내 자금이 4.4%(2000년 6.3%), 금융기관대출 17.3%(2000년 20.3%), 외자이용 4.2%(2000년 5.1%), 기업의 유보금 등 자기자금 58.3%(2000년 49.3%), 기타 15.9%임.

- 또한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투자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07년 가을에는 제17기 공산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지도부의 성장욕구가 표출되어 지방의 투자과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2007년에도 투자 규제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지급준비율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민은행은 금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0.5%포인트 씩 인상하였으며, 3월 18일에는 예금과 대출 금리를 각각 0.27%포인트 인상하였음(표 1 참조).

- 중국의 국내투자 과열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6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0.3% 포인트 낮은 1.5% 상승에 그쳤으나,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8%, 2007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2.2%와 2.7%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1조 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 관리 필요성 증대

- 2006년 말 현재 1조 663억 달러에 달한 외환보유액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압력은 물론 국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긴축조치만으로 해외부문에 의한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중국정부는 2006년 이미 수출 규제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흑자의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투기성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의 외환보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축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수출증치세 환급 축소 품목의 확대, 수출관세 부과, 일부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등을 통하여 수출업체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첨단제품에 대한 수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2006년 9월에는 수출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인하한 데 이어, 11월에는 804개 품목(HS 8~10단위 기준)에 대해 가공무역을 금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하는 등 수출 규제에 나선¹⁾

- 이 외에 2007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법과 유사한 반세점법(反洗錢法)이 실시됨으로써 그동안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불법 외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음.

표 5. 중국의 외환보유액 조정을 위한 관련 조치

구분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수출 억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2006년 9월)	• 철강제품(11%→8%), 섬유제품(13%→11%) 등의 환급률 인하 • 일부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등)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
	수출관세 부과(2006년 11월)	• 자원소모형 상품 및 천연자원(110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 금지(2006년 11월)	• 자원 및 환경 관련 80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
수입 확대	수입관세율 인하(2006년 11월)	• 신기술 관련 부품(1~7%→0~3%), 석탄·정제유(3~6%→0~3%), 화학비료(3~5.5%→1%) 등
자본 유입 억제	FDI 선별 강화	• 「외자이용 11.5 규칙」 발표(2006년 12월) • 자원소모적 투자 및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한 FDI 유입 억제
	투기성자금 유입 통제	• 중국내 외자은행 및 기업의 외화 차입에 대한 규제 강화 •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조건 강화(중국 거주 1년 이상, 2006년 7월) • 반세점법(反洗錢法) 실시 → 부동산 관련 외화유출입 감독 강화
민간 보유 확대	개 인(2006년 5월)	• 외화매입 한도를 종전의 5천~8천 달러에서 2만 달러로 확대
	기 업(2006년 5월)	• 기업의 외환보유 한도를 전년도 외화수입의 80%와 전년도 총외화지출의 50%의 합계액으로 확대
유출 확대	해외투자 장려	• 기업의 해외투자 한도 폐지(종전 연 50억 달러) 철폐(2006년 7월) • 은행과 기금관리공사의 QDII를 통한 대외증권투자도 허용(2007년 1월 말 현재 QDII 총액은 137억 달러)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CNOOC, SINOPEC, CNPC 등 국영기업을 통한 해외 가스전 및 유전 지분 매입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자료를 기초로 보완

- 특히 중국정부는 제3차 금융공작회의를 개최(2007년 1월 19~20일)하여 과다한 외환보유액의 운영을 위한 투자공사 설립 방안을 논의하였음(『신화사』 2007년 1월 21일자).

1) 구체적인 내용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6-39(2006년 11월 29일) 참고.

다. 위안화 환율 안정과 외환제도 개혁 추진 필요

- 중국의 경우 환율의 재조정 없이 과잉유동성 문제와 위안화 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과 더불어 환율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국내 채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국으로서는 환율의 재조정 없이 중앙은행의 불태화정책(sterilization)만으로 외환보유액 급증에 따른 과잉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 중국의 불태화비율은 2002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6년 3월 말 현재 40%내외에 그치고 있어 민간부문의 통화증가율이 적정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됨.
- 위안화의 추가 절상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에서도 환율유연성 확대를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조만간 위안화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는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음.
- 이 경우 위안화의 대미 달러 변동폭은 $\pm 1.5\%$ 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pm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3. 2007년 중국경제 전망

가. 고성장 속에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

-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10.7%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중에는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과 금리인상 등 긴축조치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나, 하반기에는 2008년 8월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 확대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증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중국정부의 수출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2007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에는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요인을 국내 소비와 투자의 호조로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임.
- 2007년에도 긴축조치가 지속될 것이나, 그 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지방과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가 지속됨으로써 급격한 투자증가율 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외수요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국내소비 진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내소비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14%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시과열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중국정부의 과열억제 조치 시행 우려, 기관투자자들의 차익실현에 따른 매물 확대 등으로 지난 2월 27일 상해주가지수가 8.8% 폭락하는 등 중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중국경제가 금년에도 10%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펀더멘털이 매우 양호한 가운데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중국정부의 증시안정화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증시도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됨.

표 6. 주요 기관별 2007~08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기 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GDP		연평균 환율 (위안/달러)	
	2007년	2008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중국사회과학원	10.1	-	1.5	-	-	-	-	-
World Bank	9.6	-	2.1	-	7.5	-		
IMF	10.0	-	2.2	-	7.2	-		
ADB	9.5	-	1.8	-	6.8	-		
OECD	10.3	10.7	1.8	2.0	8.5	8.8	-	-
Global Insight	9.7	8.7	1.8	2.0	5.7	3.8	7.62	7.25
EIU	9.5	9.0	2.5	2.7	7.2	6.3	7.62	7.46
투자은행 평균*	9.7	9.6	-	-	-	-	-	-

주: * 11개 투자은행의 평균치임.

나. 위안화 환율은 연간 5% 내외 절상 전망

-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막대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나, 중국정부의 환율 조정 원칙(자주성, 점진성, 통

제가능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절상을 선택할 것이며 절상의 폭은 2006년 보다 소폭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거래비용모형과 통화접근모형 등 두 가지 환율결정이론을 통해 위안화의 환율을 예측한 결과, 2007년 상반기까지의 추가 절상 폭은 대체로 3% 내외를 유지하고, 연말까지는 대체로 5%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2007년 6월 말 위안화 환율은 7.55~7.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4. 시사점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절상과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여건이 다소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위안화의 절상, 수출 규제 강화는 중국을 가공무역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2%가 중간재이며, 55%가 중국내 가공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이 둔화될 경우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둔화가 불가피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본격화되면서 해외에서 발주하는 자원 개발 및 수출금융 프로젝트 수 주시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신설되는 투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한 M&A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2007년 EU 경제 전망

김 홍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김 균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주요 내용

- 2006년 EU 및 유로지역은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음.
 - 2006년 상반기 전기대비 0.9~1.0% 성장하여 5년 만에 최고의 성장을 보였던 EU 경제는 하반기에도 0.6~0.9% 성장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2006년 6월 최고치 이후 다소 후퇴했지만 2007년 초에도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며, 해외주문도 유로화 강세 및 세계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EU와 유로지역은 각각 전년대비 2.9%와 2.7% 성장한 것으로 추계됨.
- 2007년 EU 및 유로지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동향, 미국 경기 상승 여부, 금리의 추가적 인상, 재정건전성 확보, 경제개혁의 추진, 주요국의 대선으로 인한 리더십의 문제, 이민자사회통합, DDA 및 FTA 진행상황 등임.
- EU 및 유로지역 경제의 2007년 성장세는 2006년에 비하여 둔화될 것이지만 2.5% 내외의 안정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각각 1.7%, 1.4% 성장에 그쳤던 EU 및 유로지역은 2006년에 2.9%와 2.7% 성장하여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07년에는 각각 2.4~2.7%, 2.3~2.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1. 2006년 EU 경제 동향

- 2006년의 EU25와 유로지역²⁾ 경제가 각각 전년대비 2.9%와 2.7% 성장하여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2006년 EU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견실한 수출부문과 기업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임.
- 분기별로 보면, EU25는 2006년 1/4분기와 2/4분기에 전기대비 각각 0.9%와 1.0% 성장하여 2000년 2/4분기 이후 최고의 성장세를 나타냈음.
- 2006년 3/4분기에는 0.6% 성장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4/4분기에 0.9%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경기상승 기조를 나타냈음.

표 1. EU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EU-25	1.3	2.4	1.7	2.9	0.9	1.0	0.6	0.9
유로지역	0.8	2.0	1.4	2.7	0.8	1.0	0.6	0.9
독 일	-0.2	1.2	0.9	2.7	0.8	1.2	0.8	0.9
프 랑 스	1.1	2.3	1.2	1.9	0.5	1.1	0.0	0.6
이탈리아	0.0	1.2	0.1	1.9	0.8	0.6	0.3	1.1
스 페 인	3.0	3.2	3.5	3.8	1.1	0.9	0.9	1.2
네덜란드	0.3	2.0	1.5	2.9	0.3	1.2	0.7	0.6
영 국	2.7	3.3	1.9	2.7	0.7	0.7	0.7	0.8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European Commission.

- 2006년 3/4분기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이 경기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4/4분기에는 이들 국가들도 회복되면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모두 강한 성장세를 보였음.

2) 유로지역(Euro area)은 경제통화동맹(Economic Monetary Union: EMU)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기존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7년 1월부터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3개국임.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금년 1월 EU25에 가입하여 2007년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됨.

- 2006년 상반기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0%와 0.3%로 추락했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4/4분기 다시 0.6%와 1.1%를 기록하며 4/4분기의 경기상승세를 주도함.
- 2006년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과 네덜란드 경제도 4/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9%와 0.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호조를 보였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4/4분기에 도 성장률이 각각 1.2%, 0.8%를 기록하면서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6년 EU 경제는 활발한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하였으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도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4/4분기의 경우, 가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전기대비 0.6%, 0.4% 증가하였고, 투자도 1.5% 성장하였음.
- 2006년 상반기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수출부문의 증가율이 3/4분기에 0.3%로 다소 정체되었으나, 4/4분기 들어 다시 2.9%를 기록함.

표 2. EU-25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가계소비	0.1	0.4	0.5	0.2	0.6	0.5	0.6	0.6
정부소비	0.3	0.7	0.8	0.2	1.1	0.2	0.6	0.4
투 자	0.5	1.3	1.4	0.7	1.2	1.9	0.9	1.5
수 출	0.0	2.0	2.6	1.4	4.0	1.3	0.3	2.9
수 입	-1.3	2.6	2.9	2.1	3.4	1.6	0.2	1.7
GDP	0.4	0.5	0.7	0.5	0.9	1.0	0.6	0.9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경기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증가하고 있어, 2005년 12월 8.5%에 달했던 EU25의 실업률도 2007년 1월에는 7.5%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은 2006년 상반기의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불안을 심화시켰음.
- 2006년 1/4분기 2.3%였던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4분기에 2.5%에 달하였음.
- 2006년 9월 이후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져 2007년 2월 현재 1.8%를 기록 중이나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

2. EU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일곱 번 상향 조정하여,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였던 기준금리를 3.75%까지 인상하였음.
-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기 때문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 이후부터는 2%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EU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ECB는 2007년 중반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 후, 2007년 하반기에는 4%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임.

나. 회원국의 재정적자

- 유로지역 일부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극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초과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³⁾의 재정준칙을 위반해왔음.
- 그러나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뚜렷한 개선이 있었음.
- 프랑스의 경우 2005년에 이미 정부재정 적자가 GDP의 2.9%를 기록하여 기준내로 내려왔으며, 독일은 2006년에 적자수준이 GDP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독일은 2007년에도 경기상승 지속과 2007년 1월에 실시된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재정적자는 GDP의 2%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상태는 우려할 만함.
- 2005년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의 4.1%, 그리스는 5.2%, 포르투갈은 6% 등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경우에는 총 정부부채도 각각 GDP의 106.6%와 107.5%를 기록하고 있음. 더욱이 이 세 국가 모두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의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신규회원국 중에서도 2005년 헝가리의 재정적자는 GDP의 6.5%, 몰타는 3.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몰타의 경우에는 총 정부부채 규모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 독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

-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킴.
- 2006년 4월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3)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 독일도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고 6개월이던 견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07년 2월 2일 독일 하원에서 한동안 논쟁이 되었던 건강보험 개혁안이 통과됨으로써 메르켈 총리의 개혁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다수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음.
- 스페인은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승인함으로써 고용의 안정화는 달성하였으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⁴⁾
-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와 소비지출 및 민간 소비지출을 억제할 우려가 있음.

라.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말 개최된 EU 경쟁력 이사회는 2006년 2월의 EU 의회 타협안 및 EU 집행위 안을 기초로 2006년 4월에 마련된 의장국 타협안에 만장일치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
- 최종 합의된 서비스시장 개방안은 논란이 되었던 출신국(country of origin)원칙을 삭제하는 대신 서비스 공급업자는 목적지국의 법령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이해하에 공급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 포함됨으로써 당초에 기대했던 야심찬 서비스시장 통합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또한 의료, 환경, 사회보장, 주택공급 등 공공서비스와 노동부문 등은 예외가 인정되어 회원국의 재량권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4) 스페인은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에 달할 정도로 높아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낮은 생산성이 문제로 지적됨.

- EU를 2010년까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는 EU 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합의됨으로써 향후 EU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EU 서비스 산업은 EU 노동력의 약 70%인 1억 2천만 명, GDP의 약 72%인 1조 7,730억 유로에 이르는 최대 산업임.

마. EU 및 유로존의 확대

- 2006년 10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2007년 1월에 EU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10개 신규회원국 중 슬로베니아가 2007년 1월부터 EMU에 가입하고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유로지역도 13개국으로 확대되었음.⁵⁾
- 당초 슬로베니아와 함께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신청했으나 EU 집행위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만 가입을 승인하고 물가상승률에서 문제가 된 두 나라의 가입은 연기하였음.
-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2009년 정도가 되어야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몰타,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08년까지 EMU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4년의 신규회원국 중 가장 규모가 큰 체크, 폴란드, 헝가리는 정부재정 적자 및 환율불안 등으로 EMU 가입이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바. 독일,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 독일이 2007년 1월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메르켈 총리의 국제적 입지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5) 슬로베니아는 2004년 신규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 중 처음으로 유로지역에 가입한 것임.

- 영국에서는 금년 중 블레어 총리가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EU내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임.
- 메르켈은 EU의 결속력 강화 및 경제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있어 EU 헌법 부활 및 리스본 전략의 강화 등이 예상됨.
- 금년내 EU 헌법 부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2006년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둔 독일경제 회복이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개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어 리스본 전략을 중심으로 한 EU와 독일의 경제개혁 추진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사. 기타 외적 요인

- EU 경제의 수출 호조와 해외주문의 증대는 EU 경제회복과 사업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유가가 다시 불안해진다면 추가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투자 축소를 불러 올 위험이 있음.
- 북해산 브렌트유는 2006년 8월 초 1배럴당 78.8달러까지 상승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으나, 9월 말 이후 60달러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안정세를 보였음. 2007년 3월 13일 현재 1배럴당 60.90달러를 기록 중임.
- 미국경제의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면 수출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것임.
- 2006년 12월 초 1유로당 1.34달러까지 치솟은 유로화 가치가 2007년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심화로 인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강세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지역의 경쟁력 및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유가불안 현상과 미국 경기의 부진,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은 EU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EU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2007년 경제전망

- 최근의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제조업 및 서비스부문의 구매관리자 지수는 2006년 6월 최고치 이후 다소 후퇴했지만 2007년 초에도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며, 해외주문도 유로화 강세 및 세계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도 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 10월 이후 다소 후퇴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기조를 타고 있음.

표 3. 2007년 EU 경제성장률 예측치

(단위: %)

예측기관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EU-27	2.7	2.4
유로지역	2.4	2.3
독 일	1.8	2.0
프 랑 스	2.2	1.8
이탈리아	2.0	1.4
네덜란드	2.8	2.2
스 페 인	3.7	3.5
영 국	2.7	2.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2), Interim Forecasts; Global Insight(2007. 2), Online Analysis.

- EU 및 유로지역 경제의 2006년 성장률은 2005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7년 성장세는 2006년에 비해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각각 1.7%, 1.4% 성장에 그쳤던 EU 및 유로지역 경제는 2006년에 2.9%와 2.7% 성장하여 회복세를 보인 후 2007년에는 각각 2.4~2.7%, 2.3~2.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2007년 국제금융시장 전망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3460-1153)
김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Tel: 3460-1193)

주요 내용

- ▣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인해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엔화의 경우 달러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보여왔으나 금리 인상 이후 강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미국, 일본, 유럽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일본은 정책금리를 0.5%로 인상하였음.
- ▣ 미국으로의 장기증권자금의 유입은 853억 달러에서 68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단기자금변화 등을 고려한 대미자금 유입 총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는 2006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또한 미국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는 391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의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둔화 여부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 외환시장

-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에 힘입어 평가절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으나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11.4% 평가절하되었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1.1% 절상되었음.

- 물가변동을 고려한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은 2005년 2월 90.0에서 2006년 2월에는 91.4로 상승하였음.

표 1. 최근 달러화 추이

구분	2006년 11월	2006년 12월	2007년 1월	2007년 3월 9일
달러/유로	1.3240	1.3196	1.3033	1.3115
엔/달러	116.10	118.78	121.29	118.32

주: 기말기준.

자료: Reuters

그림 1. 1엔, 1유로당 미 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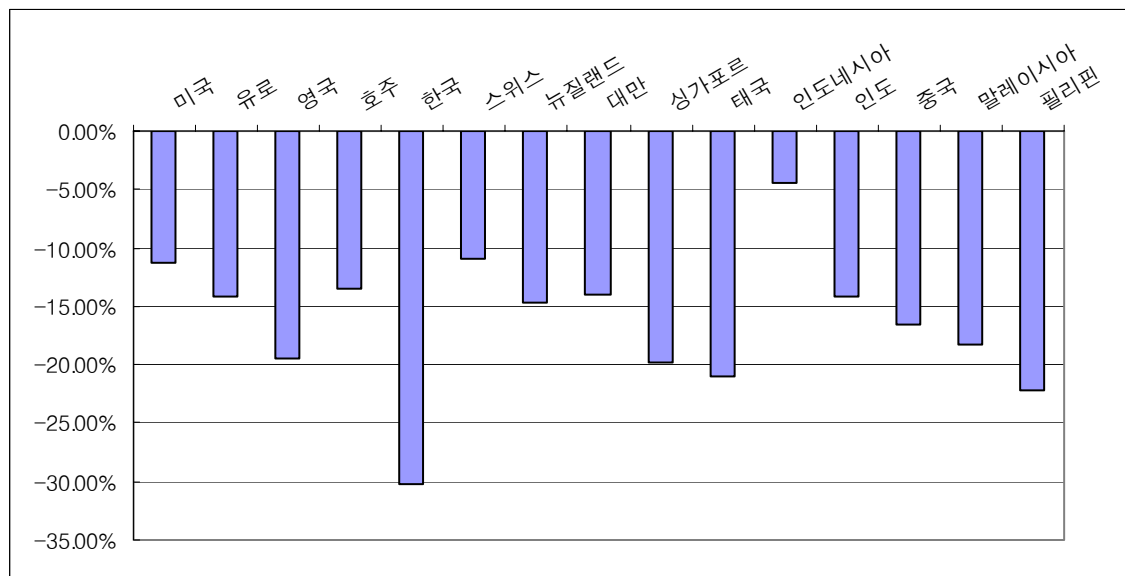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 일본 엔화의 경우 달러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세를 보여왔으나, 지난 2월의 금리 인상 이후 강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엔화는 2005년부터 2007년 3월 12일까지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바트화에 대해 각각 14.3%, 11.2%, 14.4%, 35.6% 절하되었음.
- 이러한 글로벌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는 일본의 낮은 금리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기거래자들의 엔화 통화선물 매도세가 집중된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해외직접투자(FDI)의 순유출 증가 역시 엔화 약세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일본의 FDI 순유출 규모는 2006년 말 5,910억 엔을 기록하여 1996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그림 2. 2004년 이후 국별 엔화약세의 정도



자료: Bloomberg

- 하지만 일본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대외금리 차이 축소가 엔캐리 트레이드 둔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금리 인상 이후 엔화 환율은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1월 1일~2월 21일 일본 엔화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에 대해 각각 1.5%, 1.3%, 0.7% 절하되었으나, 금리 인상 이후 3월 21일 현재까지 각각 3.3%, 2.9%, 3.3% 절상되었음.

표 2. 금리 인상 이후 엔화 환율 추이

구분	1월 1일	2월 1일	2월21일 (금리인상)	3월 12일
엔/달러	119.03	120.78	120.86	117.51
엔/유로	156.93	156.85	158.91	154.44
엔/파운드	233.66	237.55	235.38	228.62

자료: Bloomberg

- 주요 투자은행들은 달러/유로 환율이 3개월 후 1.33에서 12개월 후에는 1.3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엔/달러 환율은 3개월 후 115.33엔 수준에서 12개월 후에는 108.67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함.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2007년 환율 전망치

구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엔/달러 평균	115.33	111.50	109.67	108.67
달러/유로 평균	1.3333	1.3550	1.3517	1.3467

주: JP Morgan, BNP Pariba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Nomura, HSBC의 전망 평균으로 전망일은 2007년 2월임.

2. 국제금리

가. 장기금리

-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모두 상승하는 추세임.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월 중 일부 경제지표의 개선 발표와 이에 따른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 국채 신규발행 확대,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2007년 1월 11일) 등으로 2006년 12월 말 4.70%에서 2007년 1월 말 4.81%로 상승하였음.⁶⁾
 - 2007년에도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에 대해서는 경제의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장·단기 수급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⁷⁾
 - 일본 역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6년 12월 3.90%에서 2007년 1월 4.10%로 상승하였음.

6) 연방준비은행(FRB)

7)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경우 장기금리가 낮은 만큼 기업들이 장기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어 오히려 경제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음.

나. 단기금리

-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연방기준금리를 현재의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미국의 금리 동결은 임금상승이 예상치를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일본 중앙은행은 연초 경제의 전반적인 호조(내수 생산 및 수출 급증), 인플레이션 및 소비 둔화를 반영하여 0.25%의 정책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월 21일 정책금리를 0.5%로 전격 인상하였음.
 - 이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회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일본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계획, 일본과 주요국의 금리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이후 2007년 3월까지 모두 일곱 번 상향 조정하여,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하였음.
 - 유럽경제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은 2007년 중반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한 후, 2007년 하반기에는 4%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영국의 경우 2007년 1월 11일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한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세계자본 흐름

가. 대미 자금 유입 증가

- 최근 미국으로의 장기증권자금 순유입은 2006년 10월의 853억 달러에서 11월에는 68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단기자금 변화 등을 고려한 자금 유입 총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정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는 2006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또한 미국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도 391억 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표 4. 대미 포트폴리오 순유입 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5년	2005년 1~11월	2006년 1~11월	9 월	10 월	11 월
해외투자자의 美증권투자(A)	1,011.5	957.1	1,015.9	93.6	104.2	107.4
(민간부분)	891.1	827.9	854.4	76.9	78.9	101.0
(공공부분)	120.4	109.2	161.6	16.7	25.3	6.5
(美채권)	929.6	865.5	879.1	84.0	81.0	105.7
(美주식)	82.0	71.6	136.8	9.6	23.2	1.8
미국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B)	-172.4	-150.4	-209.8	-22	-18.9	-39.1
합계 (A+B)	839.1	786.8	806.1	71.6	85.3	68.4
대미자금 총계 ¹⁾	667.9	600.1	775.4	60.6	60.4	74.9
무역수지	-716.7	-652.6	-701.6	-64.3	-58.8	-58.2

주: 합계(A+B)에 단기자금, 달러표시 예금 등을 반영한 값임.

자료: US Treasury; BEA.

나.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둔화

- 2006년 중 신흥시장에 유입된 민간자본은 5,018억 달러로 2005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2007년에도 신흥시장 민간부분의 자본 유입은 2006년에 비해 331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투자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신흥시장의 민간자본 유입은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2006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은 가운데 우호적인 시장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임.
- 단 미국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급격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 국제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

표 5. 신흥시장의 자본 흐름.

(단위: 10억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상수지	150.2	257.8	317.0	281.5
민간부문의 자본유입액(net)	348.8	509.3	501.8	468.7
주식시장(net)	195.1	254.5	255.0	274.5
FDI(net)	156.0	198.7	185.3	211.0
포트폴리오(net)	391	558	697	635
채권시장/여신을 통한 자본유입액(net)	153.7	254.7	246.7	194.2
상업은행 여신(net)	60.8	141.8	143.3	101.3
비은행기관 여신(net)	929	112.9	103.4	93.0
외환보유액(-: 증가분)	-398.2	-439.8	-536.0	-505.6

주: *는 IIF 예측치임.

자료: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IIF), Inc.(2007. 1)

다. 주요국 증시

- 최근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일본의 금리 인상,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중국 증시의 급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미국의 주가는 주택경기 호조에 대한 기대, 유가 하락,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월말 중국 증시 급락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유로지역의 주가는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동결과 역내 기업의 실적 호조 및 M&A 증가 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세계 증시 급락의 여파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일본의 주가는 엔화약세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와 북한 핵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연초 17,000선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중국과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이번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중국 증시의 급락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향후 미국 경기의 불투명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2007년 1월 내구재 주문의 경우 전월에 비해 7.8%나 감소하여 제조업부문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주택시장에서도 1월 신규주택 판매와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각각 전월에 비해 16.6%,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주택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착공허가도 전월대비 2.6%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⁸⁾
- 또한 세계증시의 동반 하락 이후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엔캐리 트레이드는 주식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둔화 여부가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결정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에 대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00억~1조 달러, JP Morgan은 1,500억~6,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⁹⁾
- 일본이 금리를 단기간에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엔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국제유동성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낮은 물가상승세,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여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미국 경제의 후퇴 가능성 등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유가 상승,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증시 과열 방지책 마련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신흥시장의 동반 하락 및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6. 주요국 주가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12월	2007년 1월	2007년 2월	2007년 3월 6일
Dow Jones	10,717.5	12,463.2	12,621.7	12,268.6	12,207.6
Nasdaq	2,205.3	2,415.3	2,463.9	2,416.2	2,385.1
Euro Stoxx	3,578.9	4,119.9	4,178.5	4,087.1	4,010.4
Nikkei	16,111.4	17,225.8	17,383.4	17,604.1	16,844.5

주: 기말 기준.

자료: Reuters

8)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9) 엔캐리 트레이드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며 조사기관에 따라 편차가 심함.

2007년 통상환경 전망

이성 봉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sblee@kiep.go.kr, Tel; 3460-1186)

주요 내용

▣ DDA 동향 및 전망

-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WTO의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실질적으로 재개되었으며,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도출하기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과 함께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절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DDA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함.
- 낙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이 도출되고 이를 근거로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갱신되어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초 DDA가 종결된다는 것이고 반면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주요국간의 정치적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고 DDA는 향후 2~3년의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것임.
- 결국 2007년 4월 초가 향후 DDA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4개국(미국, EU, 브라질, 인도)의 정치적 타결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이외에 서비스협정이 45건, 개도국간 협정이 20건, 관세동맹이 11건으로 집계됨).

- 현재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1. 2007년 DDA 전망

가. 최근 동향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는 5년간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감축과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간 입장 절충에 실패하여 지난 2006년 7월 중단되었음.
- DDA 중단은 표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미국과 EU의 대립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 농업 이외 협상분야에서의 회원국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은 원인이었음.
- DDA 중단 이후 최근까지 라미 사무총장의 비공식 개별 접촉, 주요 협상 그룹별 활동, 복수 국가 협의(fireside chat) 등 DDA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
- 이는 결국 2007년 1월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주요국 통상장관들의 DDA 재개 합의로 이어졌음.

나. 협상 전망

- DDA가 공식 재개하로 합의함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 중 실질적으로 재개되었으며, 2007년 12월까지 DDA 종결을 목표로 2007년 4월 초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합의 도출하고자 집중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과 EU는 DDA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미국, EU의 타협을 기초로 이들 주요국간의 절충이 이루어진다면 DDA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음.
- 그러나 개별 협상의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쟁점이 남아 있음. 이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 시일내 DDA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움.
- 또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시한과 주요국의 정치 일정도 DDA 전망의 고려 요인임. 미국의 TPA 종료가 2007년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연장 없이는 설령 DDA가 2007년에 타결된다고 해도 미국이 DDA 결과를 이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DDA 협상을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이 동시에 가능할 것임.
- DDA의 낙관적 전망은, 2007년 2월 중에 DDA가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으로 재개된바, 2007년 3월 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을 합의·도출(또는 최소한 삼각 쟁점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 4개국간 합의 도출)해냄으로써 2007년 말(또는 2008년 초)에 DDA가 종결된다는 것임.
- 낙관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조건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 여부임.
-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주요국간의 정치적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고, DDA는 향후 2~3년의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내용임.
- 현재까지 진행된 DDA의 경험과 속도를 감안할 때 잔여 핵심 쟁점이 많이 남아 있는 농업과 NAMA, 그리고 이러한 핵심 쟁점에 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1~2개월의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함.
- 따라서 비관적 전망은 2007년 4월 초 세부원칙 도출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결국 DDA는 2008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TPA에 의해 2009년이나 경우에 따라서 2010년에 DDA가 타결된다는 것임.
- 현 단계에서는 낙관적, 비관적 전망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특히 2007년 3월 말 또는 4월 초가 낙관적 전망이나 비관적 전망에 관계없이 향후 DDA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임. 이는 미국과 EU의 농업부문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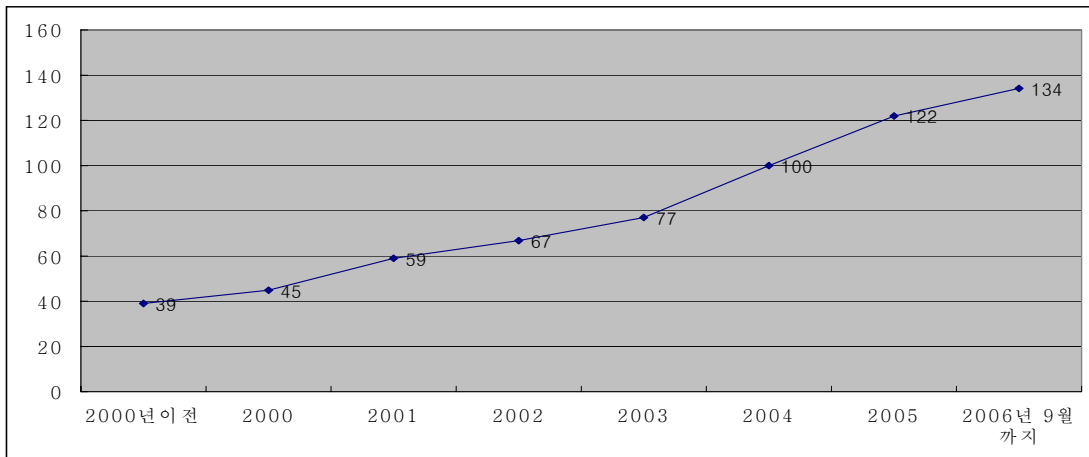
2.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7년 전망

가. 세계 FTA 추진 동향

- WTO(2006년 9월 현재)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0건으로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3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이외에 서비스협정이 45건, 개도국간 협정이 20건, 관세동맹이 11건으로 집계됨).

- 시기별로 2000년 이전에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39건에 불과하나 2000년대 들어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4년에 100건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 현재 134건에 달함. 지역별로 최근 들어 아시아국가들이 FTA 추진에 있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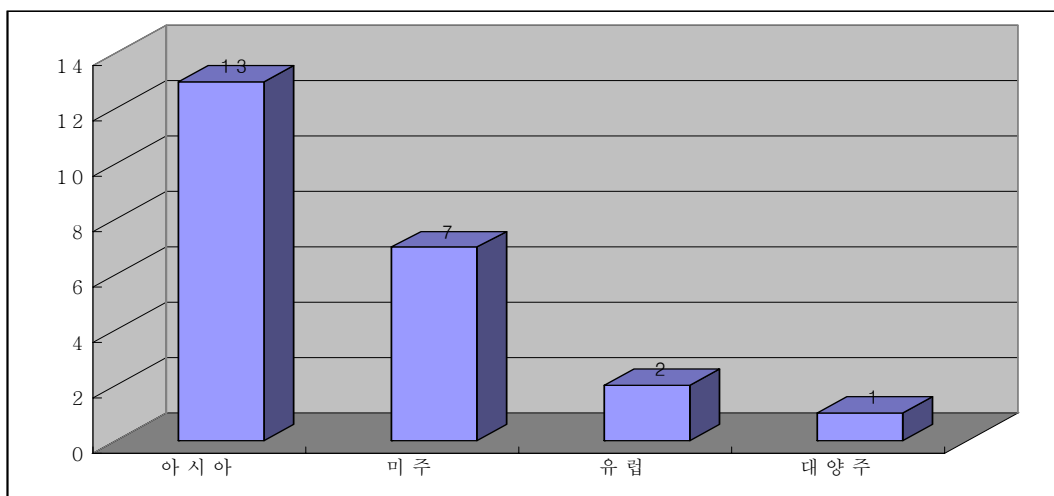
그림 1. WTO 에 통보된 FTA 누적수



자료: WTO

	2000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9월
신규	-	6	14	8	10	23	22	12
누계	39	45	59	67	77	100	122	134

그림 2. 2005년 타결된 FTA 대륙별 현황



나. 2007년 FTA 전망

- 현재에도 다수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활발한 FTA 추진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와 칠레, 페루, MERCOSUR 등의 남미지역 및 EFTA 등의 유럽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 활동이 예상됨. 이는 최근 EU가 다자주의 우선원칙을 내세워 FTA 추진을 자제하고 있으며 미주지역 역시 FTA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임.

표 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국가	체결수	기체결 대상국	추진 및 검토 대상국
미국	17	이스라엘, NAFTA, 싱가포르, 호주, 칠레,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등	태국, FTAA, SACU, 안데안, 한국(이상 추진 중), 대만, 아세안, 일본 등(이상 검토 중)
EU	35	EFTA, 알제리, 요르단, 멕시코, 모로코, 터키, 칠레 등	MERCOSUR(추진 중), 대만, ASEAN, 싱가포르, 이란, GCC 6개국(이상 검토 중)
칠레	41	캐나다, 멕시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MERCOSUR,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EU, 미국, EFTA, 한국, 중국 등	바레인, 호주, 싱가포르-뉴질랜드(P3) (이상 추진 중), 일본, 인도
중국	4	홍콩, 마카오, 칠레, 파키스탄	ASEAN(추진 중)
일본	5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ASEAN,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한국	6	칠레, 싱가포르, EFTA	일본, 미국, ASEAN, 멕시코, 인도, MERCOSUR